

제23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 2015.12.8.(화)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2016년은 군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ی겠습니다”

시 정 연 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동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완도군의회 제236회 제2차 정례회에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완도군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실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완도발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품격 높은 권고와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는 금년에만 의원발의 조례안 34건을 비롯해 총 120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역동적인 의정 활동은 그 어느때 의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도입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이념과 사회적 갈등으로 격화되며 국론이 분열되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밖에서는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대국굴기(大國崛起)'를 내세워 새로운 패권을 꿈꾸면서 한반도에 실리와 명분의 선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전쟁수행이 가능한 소위 정상국가로의 파렴치한 변모를 꾀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인명살상을 목표로 자행되고 있는 테러는 지구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외 경제관련 기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환경에 불안감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실도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습시다. 메르스 여파로 국민들의 위축된 소비 심리가 전복과 광어회 등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움도 있었습시다.

남해바다 전역에서 발생한 적조는 2005년 이후 10년만에 어패류 피해를 가져와 작금(昨今)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도 확인 하였습니다.

적조피해로 인해 심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계시는 어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육지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기형적 산물인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며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지역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도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군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실현을 위한 충정의 신념으로 지역과 중앙을 누비며 군민의 삶을 살피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여름, 국가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에는 슬기롭게 대처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의 섬 완도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전북산업 현장을 밤낮으로 누비며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어민과 행정의 각자의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도해 관광 1번지 청산도는 슬로시티 정체성을 유지하며 관광완도를 이끌고 있으며, 올해부터 콘텐츠를 다양화 한 '장보고 수산물 축제'는 돈버는 생산적인 축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안도와 생일도가 전라남도 가고싶은 섬 공모 사업에 연속으로 선정되어 제2, 제3의 청산도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육상양식 어가들은 영구시설 축조 금지 제약으로 인해 양식장 전체를 불법시설물로 취급 받으며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으나 공직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한 것은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선포하여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청정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대내적으로는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바다보전에 대한 대국민 의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2016년에도 완도군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실현을 위해 열정을 바친 완도군 공직자, 그리고 군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완도군 의회라는 호평과 격려를 계속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은 우리 군이 설군 된지 1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며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실현을 위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활기찬 군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여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하는 화합행정으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완도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은 완도군 모든 정책의 기초(基調)이며, 목표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부가가치 높은 소득을 창출하고, 언제나 군민의 이익을 우선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 형평성 있는 나눔으로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완도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의를 수렴함에 있어 때와 장소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군수실 문턱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군수실을 수시로 운영하여 군민과의 거리를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는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군민제안 제도 및 군민계획단 운영을 활성화 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특히, 소통·화합위원회는 당초 출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스스로 주체가 되는 군민상향식 사업 공모제를 통해 주민주도의 필요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완도 행복사업 공모제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의 조언을 겸허히 들을 수 있도록 생산적인 만남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소득 1조원 시대를 향한 황금바다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업은 우리군의 주력산업이며 완도경제를 이끄는 기간산업입니다.

하지만, 생산량 증대 위주의 양식산업은 어장 오염은 물론, 오히려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민들과 함께 어장의 생산력 복원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장 환경에 맞게 적정량을 시설하고 어업경영 방식을 개선하여 생산력을 복원시키고, 활력을 되찾아 완도수산업의 천년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한편, 매년 발생량이 급증하며 바다오염을 부추기는 해양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대국민 바다보존 운동을 전개하면서 권역단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해양환경악화, 생육관리 미흡으로 생산적 측면에서 위기에 봉착한 전복양식산업은 사육관리 지도강화, 우량종자 공급, 어장재배치, 저질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전복산업의 동력을 되찾겠습니다.

해조류 양식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다목적 해조류 종묘생산시설’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완도 해역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개발, 보급하여 부가가치 높은 바다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조류 가치 재조명 및 미래산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2017년 해조류 박람회는 국제행사 승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어패류 등 여타 품목의 성장에 밀려 침체된 김 산업을 부활하여 완도 김의 명성을 되찾고 해조류 산업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생산 원가상승, 소비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어류양식산업은 백신, EM, 바이오기능수 보급을 확대하는 등 완도자연 그대로 양식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전국적 관심을 끌며 새로운 유통 형태로 소비층을 확대 하고 있는 명품광어 싱싱회 택배서비스는 시장 확장 및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신지 명사십리 블루플래그(Blue Flag)인증, 해양 쓰레기 되가져오기 조례제정, 어업인 인식전환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선포 후속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청정바다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농·수·축산업 동반성장으로 골고루 잘사는 부자 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수·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극대화라는 산업·경제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생산비 절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농업 거점지역 육성, 바이오기능수 생성 장치 지원, 친환경 농업단지를 늘려 완도자연 그대로 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와, 소형 저온저장고, 농가소득 직불제 지원 사업을 늘려 농업경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특히, 타지역 쌀보다 미질(米質)이 떨어져 지역에서도 선호도가 낮은 완도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품성 높은 종자를 보급하고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가정과 식당에서 완도 쌀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도형 농수산 6차산업의 모델이 될 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구들장논의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을 통해 전통 농경문화를 보존하고 가치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출현을 향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급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완도에 귀농·귀어한 도시민들이 빠른 시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따뜻한 완도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돕겠습니다.

비교우위적인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지키면서 미주, 중화권, 할랄시장 등 글로벌 시장개척도 본격화하여 장보고 대사가 이룩하고자 했던 청해진 천년 한상의 꿈을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우리군의 Day-마케팅 전략인 전복데이와 미역데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으로 골고루 잘사는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신(新) 장보고 문화·관광르네상스로 5백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관광은 완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입니다.

우리에게는, 천성부터 착한 군민들의 푸근하고 넉넉한 인심과 천혜의 자연경관 등 국내 최고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감성적인 관광마케팅을 전개하고 글로벌 관광완도 실현으로 5백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글로벌 완도의 시작은 세계 해양영웅 장보고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장보고의 글로벌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기념사업회 등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범화사지 발굴 및 재건, 장보고리더십 아카데미를 활성화하여 장보고의 천년혼이 살아 있는 완도를 국민들의 개척정신과 진취적 기상을 기르는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섬 예술제, 세계 군악제 개최를 검토하고 장도 유적지, 장보고기념관, 청해포구 촬영장을 연계한 장보고 역사, 문화, 관광 핵심거점으로 조성하는 신(新) 장보고 문화·관광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거리 및 회센터를 활성화하고 해안누리길 해양 문화 콘텐츠 조성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융합된 다양하고 특색있는 완도관광 삼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소안도와 생일도의 가고 싶은 섬 개발, 보길도 어부사시사 테마길 조성,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기념사업 추진 및 관왕묘 복원을 서두르는 등 차별화되고 역사성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장보고수산물 축제를 비롯해 모든 축제는 주민의 소통과 화합, 지역경제 기여도, 완도 홍보효과에 목적을 두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완도군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로컬자원을 활용하여 개최한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은 알찬 프로그램과 운영의 묘를 살려 비수기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2016년을 외국인 관광객 완도방문의 해로 정하고 요우커를 비롯한 글로벌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부족한 숙박시설은 확충하고 맛있고 저렴한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서비스업주 의식개혁도 전개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사계절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개방형 수영장 건립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수준 높은 군민 문화생활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국민들의 소득증가, 수명 연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욕구 충족 및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의 힘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해양 헬스케어 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완도는 해수, 모래, 해양성기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비롯해 해조류와 전복 등 면역 및 보양식품이 풍부해 해양 헬스케어산업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관심있는 기업과 손잡고 해양, 의·과학, 관광산업을 융·복합화한 해양헬스케어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전국 최대면적인 동백숲을 치유의 숲 등 어메니티(amenity) 공간으로 조성하여 헬스케어 산업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어항 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노화-소년 연도교 가설공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득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완도읍 군내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60억원이 투입되는 금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와 접근성 및 물류수송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1차구간은 내년 12월 착공 예정이며 잔여구간 37.5km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완도-고흥간 국가지원 지방도 조기승격을 위해 내외 군민의 역량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 완도군, 전남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범국민 분위기 조성은 물론 중앙정부에 논리적인 사업 당위성을 제시하여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도농교류센터 활성화, 소득창출, 주민공동체 형성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11만 평방미터(33,333평) 규모로 조성중인 해양생물 농공단지에는 내년 12월까지 완공하고 우량기업 입주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한 완도,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로 행복 지수를 높여가겠습니다.

완도의 발전도 군민의 삶이 불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며 군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자세로 시설물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운영하는 완도군 CCTV 통합관제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상황대처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주변과 산업현장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10개 분야의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산림보다 5배 높은 해조류를 UN 기후변화협약 인증을 받도록 기후변화 학술회의 유치 등 우리군의 역할을 다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탄소거래제에 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세상,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자 최대 목표이며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형편이 나아질수록, 우리가 보살펴야 할 이웃들의 소외감은 그 만큼 더 깊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3만 1천여명의 복지대상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자활, 자립능력을 키우도록 일자리 마련, 고충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의 지방이양 없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지자체의 행·재정적 여건으로는 모든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은 현재의 모순된 복지정책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민관이 힘을 모으고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여 따뜻한 완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힘의 원천인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공간 등, 건전한 여가 창출의 무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키워가도록 아낌없이 투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조직 역량 강화 및 생산성 높은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어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직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같은 일을 해서는 완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완도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차이를 찾고 이를 차별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데 게을러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청렴생활을 솔선 실천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떳떳한 자신감으로 업무에 매진함으로써 군민들께 두터운 신뢰를 받는 공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사업성 높은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대외평가에도 좋은 실적을 거두어 군정 동력을 확보하면서 군의 신인도(信認度)를 높여 가겠습니다.

저도 완도의 현실을 가슴으로 품으며 군민이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찾고, 군민이 행복을 실감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천 3백억 552만 5천원, 특별회계 125억 7천 6백 2십만 4천원 등, 총 3,425억 8천 1백 7십 2만 9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381억 26만 4천원보다 1.33%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중 보조사업은 442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도·군비 1,921억 6천 3백 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7.28%로 전년도 5.9%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감소되어 가용재원이 빠듯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행정 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여유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농·수·축산업 경쟁력 확보 사업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심사숙고해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예산이 군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확정해주실 2016년도 예산안은 곧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올바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향후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시 실과소장들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와 650여 공직자들은 내년에도 창조적 변화를 거듭하면서 군민들로부터 진정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군정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의 군정 목표가 진정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군민, 군의회, 사회단체, 그리고 공직자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고, 완도만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를 더욱 열심히 갈고 닦아 건강의 섬 완도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에도 완도군의회와 의원 여러분께 더 큰 영광과 발전 그리고 가정에도 항상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 12. 8.

완도군수 신 우 철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THE CAPITAL
OF THE CLEAN SEA
WANDO
완도

